

여성상담의 특징과 여성상담자의 전문적 자질

이 규 미

중앙대학교 청소년학과 강사

여성주의적 관점에서는 기존의 심리상담이론만으로는 여성내담자를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여성이 경험하고 있는 사회화의 불평등요소를 고려해야한다고 강조해 왔는데 이는 상담자의 보다 적극적인 환경개입이라는 새로운 역할요구와 일치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여성의 문제를 새롭게 인식하고 이를 상담에 반영하려는 여성상담의 필요성과 특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 결과에 따라 여성상담에 적합한 상담자의 전문적 자질이 무엇인지 제시하고자 하였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더 많은 심리적 갈등을 경험하며 기존의 남성중심적 건강표준을 여성에게 적용하는 데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성이 처해있는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요구되며 이를 반영한 상담이론 정립과 상담방법이 더 깊이 연구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여성상담자에게는 다학문적 성격이 요구되고 무엇보다 상담심리와 여성학적 배경을 갖고 있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그리고 모든 상담자가 여성주의 상담자로서의 기본자세를 겸비한다면 여성내담자를 이해하는 데 보다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현재 다양한 배경을 가진 여성상담자의 전문적 자질이나 훈련에 대한 기본 지침과 훈련과정을 정립해 나갈 수도 있을 것이다.

1. 서론

최근 여성인력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지고 또한 핵가족화로 부부중심의 생활이 강조됨에 따라 여성 뿐 아니라 남성의 입장에서도 여성과의 원만한 조화를 위해서는 과거답습적인 사고와 행동으로는 문제가 많다는 것을 점차적으로 인식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인식을 높이는 데는 그간의 여성운동가들의 역할이 크게 작용해 왔다. 그러나 많은 여성, 혹은 남성들이 여전히 가장장적인 사고에 얽매인 채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이 함께 살고 일하는 생활현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의 해결점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직도 사람들의 의식의 전환을 꾀하는 데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의식화 과정이 남녀 양성간의 조화, 적응을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인간을 연구하는 심리학자들 사이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Guilbert(1992)는 전통적인 심리학 연구의 특징으로 첫째, 전형적으로 사회현상이 일어나는 맥락으로부터 맥락을 해체하고 고립시켜왔으

며, 둘째 인간행동을 펼쳐보이고 설명하기위한 정신내적, 개인적 변수들에 초점을 맞추어 왔으며, 셋째 적응적이고 건강한 행동이나 심리적 기능의 모델이나 표준으로 백인 남성을 사용해왔고, 넷째 Hare-Mustin과 Marecek (1990, Guilbert로 부터 재인용)에 의해 제안된 alpha bias 등의 존재를 들고 있다.

alpha bias란 남녀가 서로 다른 반대의 속성을 갖고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성차에 대해 과장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관점으로 인하여 반대되는 경험적 증거들은 무시되고 남성이 여성보다 항상 뛰어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직접 사람들의 적응문제를 다루고 연구하는 상담자들의 경우 여성문제에 대한 보다 객관적이고 진보적인 시각의 정립은 필수조건이라 할 수 있다. 여성내담자를 위한 연구가 필요하게 된 것은 남녀의 차이를 강하게 부각시키기 위한 입장에서 라기보다는 오히려 지나치게 강조되고 차별화되어온 남녀차에 대한 잘못된 시각을 교정하고, 여성을 남성중심의 사회구조에 잘 적응시키려는 전통적인 상담방법에서 벗어나 여성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사회적 맥락과 관련하여 여성의 문제를 재인식하고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사회환경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데서 출발한다. 최근 상담자들 사이에서는 내담자 개인에 대한 단순한 치료적 접근에 주력하기보다는 이러한 문제를 야기시킨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더 나아가서는 문제를 예방하는, 보다 적극적인 환경치료자의 역할을 담당해야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George 과 Cristiani, 1981) 여성상담도 여성이 살고 있는 사회환경에 대한 문제의 인식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같은 맥락의 움직임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은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요구하는 미래형 상담자에게 매우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리나 무엇보다 여성상담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방법론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여온 여성운동가들의 업적과 발견에 대해 기존의 심리상담가들이 관심을 갖고 장점을 받아들여서 여성내담자에게 보다 효율적인 도움을 줄 뿐 아니라 학문적 발전을 이루고자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가하면 최근 여성학자들이나 여성운동가들 역시 기존의 심리상담이론과 기법을 연구하여 장점을 취하고자 하는 데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경향이다. 이러한 학문적, 혹은 활동영역상의 교류는 여성상담에 대한 이론적, 실제적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여성상담의 필요성이나 여성상담의 특징을 정리해보고 이러한 특징으로 미루어 여성상담자가 갖추어야 할 전문적 자질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은 최근 고조된 우리나라에서의 여성상담자의 성격을 규정하고 훈련과정을 구체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 여성상담의 필요성

여성상담의 출발은 기존의 상담이론이 가부장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여성을 진단하고 차별적 사회구조에 적응하도록 요구하면서 여성의 진정한 자기발견이나 잠재력 개발에 한계를 갖는다는 데부터 비롯된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여성의 위치는 차등적이며 억압되어 있어서 여성은 자아정체감을 확립하는 것도 어렵고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으며 의존적인 관계로 인하여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는 일도 많다. 억압의 결과로 만성적인 분노와 우울을 경험하는가 하면 의존의 병적 표현인 히스테리를 전락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러한 여성의 문제를 여성이 본질적으로 열등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거나 개인적 문제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

여성의 정신건강적 문제는 동서양 공통의 문제로, 결국은 차별화된 사회화의 문제라는 게 여성 연구자들의 공통된 견해이다. 참고로 Greenspan(고석주, 1995)은 미국의 경우 정신과의 모든 영역의 환자들, 외래환자, 수용환자, 개인심리상담 내담자의 대다수가 여성임을 밝혀냈고 최해림, 김영희(1996)의 문헌조사에서는 우리나라 정신장애의 평생유병률 비교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유의하게 높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실증자료가 제시되기도 하였다. 그런가하면 최근엔 여성우울증 클리닉을 개설한 병원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렇게 남성보다 많은 여성이 심리적, 정신적 장애를 경험하는 것은 기존의 심리치료이론에서 주장하고 지향하는 것 처럼 단순히 개인적 원인에만 기인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변화만으로 해결될 수도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여성상담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것이다.

전통적인 정신건강모델에서는 정신적으로 건강한 성인은 곧 남성의 특징으로, 성취지향적, 합리적, 도구적, 독립적, 공격적, 개별적인 것을 의미하고 여성의, 관계를 잘 맺는, 상호의존적인, 공감적, 양육적인 특징들은 평가절하되어왔다(최해림, 김영희, 1996). 더불어 이러한 성차를 본질적인 것으로 보고 강요하거나, 변화할 수 없다는 시각으로 대해온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성차별적인 가치구조에 여성내담자를 적용시키려는 상담자의 태도야 말로 여성이 당하는 고통의 본질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그 여성개인에게 있기 보다 그 여성이 살아가는 사회구조에 있고 여성의 시각에서 무엇이 진정으로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인지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식의 전환이 없이 여성개인의 적응을 강조하다보면 내담자에게 모든 책임을 지게 하는 결과가 되고, 상담을 받으러 왔던 내담자는 오히려 상처를 받고 돌아가는 일까지 생기게

된다. 따라서 여성상담은 여성이 처해 있는 사회적 문제와 구조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남성적, 여성적이라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보다 인간적인 차원의 적응을 돕기위한 활동이 될 것이다.

여성은 남성중심의 문화에서 여성답게 사는 방식을 내면화하면서 자신의 개인적 요구를 억압하고, 억압에 대한 분노와 저항을 수동적이고 간접적인, 건강하지 못한, 그것도 표현적이거나 행동적이지않고 자기파괴적이고 내벌적인 방법으로 표현하게 된다. 이러한 여성문제의 대표적인 형태는 분노와 우울이다. 그리고 의존이 여성의 속성처럼 길들여지면서 의존자체가 문제가 되거나 의존으로 인한 심리적 후유증을 앓고있는 여성도 많다. 그리고 남성중심의 정신건강표준인 독립성을 목표로 하지만 그렇게 키워지지않은 여성들에게 자신의 의존심이나 관계중심적인 태도가 무조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여겨져 스스로 환자가 문제가 있는 여성이라는 비관적 자아관을 갖게 만든다는 것이다. '남성중심의 사회에서 남성들의 경험과 속성과는 다른 여성들의 속성은 잘못된 것이고 여성과 관련된 것은 비하되며, 더 나아가 그 사회의 잘못된 것은 모두 여성과 연관되어진다'(김영애, 1995). 즉 모든 여성의 문제는 여성으로 키워진, 사회화의 결과이므로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지않은 여성상담은 실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것이다.

여성주의 상담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전통적 심리이론에 대해 비관적 관점을 갖는다. 이들은 상담이론의 기원이 된 프로이드 이론자체가 남성위주의 이론이며, 이러한 이론을 중심으로 진단을 내리게 되면 여성증상의 원인을 여성개인의 문제로 보고 여성은 증상의 원인이 되었던 상황에 다시 적응하는 악순환을 계속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치료는 여성들로 하여금 심한 죄책감에 시달리게 하는 결과를 초래

한다(김영애, 1995). 김영애는 계속해서 인본주의 상담도 내담자의 문제를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만 볼 뿐 사회구조적인 문제로까지 확대되지 못하고 있어서 결국, 내담자의 현실상황이 개인의 책임하에 놓이게 되고 여성은 그들의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하는 입장에 처하게 된다고 지적한다. Greenspan(고석주, 1995)은 정신분석에서의 치료는 남성이 만들어놓은 여성, 가족에서 시작되는 여성다움이라는 사회화를 완결시키고자 하여 여성을 계속 무기력한 상태로 남게 만드는 작업이며, 인본주의 심리상담은 감정표현을 촉진한 점이나, 병리학보다는 건강에 초점을 맞춘 점 등 여성주의 심리상담에 크게 영향을 끼친 점은 인정하지만 문제는 자신의 개인적 책임하에서만 개인은 자유로울 수 있다는 남성중심적 신화를 동일하게 적용하면서 여성에게 수퍼우먼이 되라는 논리를 내세운다고 지적했다. 결국 여성의 현실을 여성의 책임으로 돌리는 결과가 되고 만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사회에서 여성의 역할은 보다 많은 부적응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태어나면서부터 남아선호사상에 의해 차별화되는 가 하면 양육, 교육과정에서의 차별, 취업관란, 승진에서의 차별, 저임금, 가족에 대한 봉사, 직장에서의 성폭력과 가정내 폭력 문제에 이르기 까지 여러 가지 사회적 압력에 노출된다. 한편 여성인력은 사회발전에 없어서는 안될 큰 몫을 하게 되고 여성 스스로도 개인적 성취를 추구하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여성은 가정에 대한 봉사와 사회적 성취의 이중부담을 겪어나가게 되었는데 문제는 이러한 여성 자신의 요구와 사회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여성에 대한, 여성을 포함한 세인들의 가치관은 사회적 변화속도에는 도저히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 머무르면서 여성의 심리적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여전히 많은 여성이 자신의 고통을 여성으

로서 당연히 감내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무기력하게 포기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러한 소극적 태도는 개인적으로도 큰 불행일 뿐 아니라 가정의 건강과 그러한 여성들이 몸담고 있는 직장내 환경을 개선하는 데도 오히려 장애가 되며, 여성에 대한 편견을 굳히는 결과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여성의 문제가 결코 '당하는 여성, 그 개인만의 문제일 수 없다'(한국 여성의 전화, 1988)는 것이다.

한국여성개발원자료(1985)에서는 현대 여성이 사회현실에 무조건 순종하는 것과는 다르게 취하는 태도의 예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즉 어떤 여성들은 아예 남성과 동의하고 적극적으로 남성의 입장에 편승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여성들은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자기구현의 길을 따로이 찾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또한 극소수의 여성이지만 환경과의 관계에서 포기하거나 편승하지 않고 반발하여 공격적이고 적극적이 되는 또다른 형태의 여성도 있다.

이 모든 여성이 여성의 문제에 대한 객관적 시각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무엇이 여성으로서 보다 적응적인 태도로 살아가는 것인지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하려는 것이 여성상담자들의 역할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남성중심의 문화에 편승하여 살아가는 여성은 개인적으로 보면 나름대로 잘 적응하는 듯 보인다. 그러나 극히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며, 남성으로부터의 차별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 비정상적인 경쟁의식을 키우고 실패에 대한 좌절도 더 크다. 기존 가치에 저항하며 사는 여성들 역시 이들이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입장을 보다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노력이 헛되지 않고 보다 많은 여성을 위한 초석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지원을 동원하고 이를 적절히 응집하는 방법을 익혀나가는 도움을 필요로 한다.

여성상담자의 역할은 힘없고 무기력한 여성 뿐 아니라 이렇게 남모르는 고민을 안고 살아야 하는, 그리고 그들 자신도 여성에 대한 압력자가 되기 쉬운 여성들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여성상담은 모든 여성의 상호지원적이고 보다 적응적인 생활을 돕기 위한 활동이 될 것이다.

3. 여성상담의 특징

여성상담 혹은 여성주의 상담은 여성주의적 이론과 방법을 상담에 도입(최혜림외, 1996)한 것으로, 전통적인 상담과는 달리 급진적 상담(redical therapy), 성장상담(growth therapy)의 기법과 이념을 방법론으로 빌려오고 있으며 더 중요한 특징은 상담의 대가에 의해 제창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여성들의 생각과 노력에 의해 발전한 이론(고석주, 1996)이라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여성상담은 전문가, 내담자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동료, 파트너의 관계이며 상담자는 외부인이 아닌 공동체의 일원인 셈이다.

이혜성(1988)은 여성상담을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상담자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여성내담자와 맺는 인간관계이며, 이 관계를 통하여 여성내담자는 자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기초로 성숙을 이룩해가는 과정”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여성내담자의 자기 성숙, 자아실현을 위해서는 심리적으로 건강한 정체성(identity)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한국여성개발원, 1989).

여성상담의 특징과 이상의 개념을 기초로 여성상담을 정의하면, 여성상담은 여성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이 처해 있는 가부장적인 현실에 대한 비판적 안목을 갖게 하고 이를 기초로 자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건강한 자아정체감을 확립하여 보다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 자아실

현할 수 있도록 여성을 돕는 전문적인 상담활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목표하는 것은 남성을 모델로 하는 남성적 자아에 근접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을 억압하고 자신의 힘을 부정하게 만들었던 사회적 압력을 극복한 건강한 여성적 자아를 찾아서 실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같은 여성상담의 목표를 김영애(1995)는 내담자의 의식화, 현재의 문제해결과 성장이라고 설명한다. 개인의 문제해결이 먼저냐, 정치적 행동이 먼저냐하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실제 상담현장에서는 대부분 내담자의 개인적인 문제가 우선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구체적인 목표로는 증상의 제거, 자존감의 향상, 인간관계의 개선,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향상, 긍정적인 자아상 형성등이며, 이러한 목표는 일반상담에서도 대체로 추구하는 목표라고 보았다.

그러나 Greenspan(고석주, 1995)은 여성과 사회와의 관계를 이해하도록 돕는 기술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완전할 수 없으며 모든 심리상담은 개인적인 관계이면서도 정치적인 활동임을 거듭 강조한다.

“심리상담을 받는 여성들에게는 그들이 겪는 정서적 고통의 사회적 뿌리를 강하게 의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러한 의식화 작업없이 여성내담자가 개인적으로나 집합적으로 자기 자신만의 진정한 힘이 있다고 주장할 수 없다. 요컨대 여성과 심리상담에의 새로운 접근 방법에서는 개인적이고 정치적인 변화의 수단을 여성에게 제공해야만 한다. 궁극적인 목표는 한 여성으로 하여금 자신의 개인적인 힘이 여성의 집합적 힘과 어떻게 얽혀 있는가를 보도록 돕는 것이다.”

한국여성개발원(1985)에 의한 여성상담의 목표는 개인적이면서도 정치적인 여성상담의 기본 성격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그것은 첫째,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에 책임을 나누어지는 평등한 인간관계를 제공하도록 한다. 둘째, 의식화를 높이는 접근방법을 활용하도록 한다. 즉 여성내담자가 자기자신의 능력개발과 기회를 저해하는 사회적 제약을 인식하도록 하여 성차별적 사회구조와 현실적으로 가능한 여성의 개인능력간의 차이를 변별하도록 돕는다. 셋째, 여성내담자로 하여금 개인적 능력에 대한 느낌을 개발하도록 도우며 그러한 개인적 능력감(a sense of personal power)을 대인관계, 직업관계, 정치적 관계에서 건설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넷째, 우울증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표현되지 못한 분노를 자각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분노를 건설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선택하도록 돕는다. 다섯째, 남성과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가정과의 관계에서 부여된 여성의 역할로부터 벗어나 자신을 한 인간으로서의 여성으로 재정의하도록 돕는다.

여기에 나타난 여성상담의 특징과 더불어 그 과정을 살펴보면, 여성특유의 문제를 갖고 있는 여성내담자가 여성주의 철학을 갖고있는 여성주의 상담자를 만나게 된다. 내담자와 상담자는 동지애적 평등한 관계를 갖고 여성이 처해있는 성차별적 사회환경을 탐색함과 동시에 그것이 내담자 자신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쳐왔는지 현재 곤란을 겪고있는 문제와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 탐색하게 된다. 여성내담자의 분노와 우울의 근원을 이해하고 그것에 대한 분노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표현하는 가운데 억압되어 왔거나 무시되어온, 때로는 약점으로 비하되어온 자신의 힘, 강점을 느끼게 해주고, 지나치게 의존해왔거나 집착해왔던 현실을 재평가하면서 자신의 잠재력을 동원하여 보다 성숙한 방법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다. 한편, 이제까지 여성을 억압해왔던 전통적 성역할 중심의 행동대안이 아닌 보

다 포괄적인 행동대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격려된다. 그리고 상담자는 상담과정 중 변화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환경적인 문제에 개입하여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는 등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기도 한다.

이렇게 내담자가 성역할 고정관념으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성역할 표준을 적용할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의식향상(consciousness-rising)과정이 중요한 방법으로 사용되며, 여성 자신의 권리주장, 분노등 보다 솔직하고 직접적인 자기표현능력의 향상을 꾀하기 때문에 자기주장훈련(assertion training)등도 중요한 기법이 된다.

의식향상훈련은 주로 집단형태로 이루어지는데 이는 참여한 여성들간에 공유감을 느끼게 함으로서 고립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여성들의 사회적 변화에 대해서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다. 그러나 많은 여성들이 의식향상보다는 정서적 지원을 얻기위해서 더 많이 참여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Enns, 1992). 자기주장훈련은 대인적 권리를 주장하고 부정적인 사회와의 투쟁, 솔직하고 직접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요구를 해결하는 방법과 관련하여 여성의 구체적인 행동변화에 도움이 되는 치료프로그램이다. 그리고 의식향상이나 자기주장훈련 프로그램 모두 여성내담자의 자기 존중감 향상에 효과가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Enns, 앞의 글). 구체적으로 여성의 빈약한 자아존중감이 여성의 수줍음, 충분히 발달하지 못한 재능, 우울, 죄책감, 고립의 원인이라는 가정 하에 자아존중감 프로그램(self-esteem training exercises)을 실시하기도 한다. 그러나 여성상담에서는 특별한 기법을 강조하기 보다는 상담의 기본전제와 상담자의 자세와 태도, 가치관을 더 중요한 치료적 도구로 보는 경향이다.

이러한 여성상담의 성격은 Radov 등(1977;

Israel, 1985에서 재인용)이 제안한 여성을 위한 집단상담의 구성요소에도 잘 나타나있다.

그것은 첫째,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을 넘어서서 위험이 따를지라도 여성은 모든 역할에 개방되어 있고, 여성은 보다 융통성있는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여성이 전통적으로 여성적인 직업이 아닌 비전통적인 직업을 선택했다라도 더 이상 남근선망으로 해석해서는 안된다는 것이고, 상담자들의 태도도 이러한 변화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여성들이 내재화된 사회적 규준과 현재의 사회적 압력에 의해 행동하고 있다는 사회심리학적 조망을 고려하여 보다 포괄적인 사회맥락에서 여성의 행동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상담자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문화적 편견에 대해 인지해야 하며, 어떤 내담자를 대할 때 자신의 배경을 고려하면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여성상담은 여성에게 새로운 자아이상(a new ego ideal)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돕는 것으로, 양육, 예민함, 관계성과 같은 여성의 장점에 대한 인식과 가치를 강조하며, 동시에 보다 공격적, 주장적이 되도록 돕는다. 그러기 위해서 상담자는 역할 모델이 되고 내담자의 독특한 요구와 능력에 기초한 새로운 자아이상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유용하면서도 현실적인 방법을 제공하게 된다. 넷째, 흔히 남성은 일을, 여성은 사랑을 키워왔으나 여성상담자들은 사랑과 일 양 능력을 보다 더 현실적으로 조화롭게 발달시킬 수 있도록 돕는다. 다섯째, 여성상담자들은 여성의 다른 여성과의 관계의 가치를 재평가하도록 돕는다. 과거에는 여성들이 남성적인 직업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강했으나 여성자신의 자존감과 자기의식이 향상되면서 여성들은 남성의 일이 아닌 여성 나름의 전문직을 찾게 된다.

여성에 대한 접근방식도 다양하게 발전되어 왔으나 여성상담에서는 여성자신에 대한 재발

견과 사회현실과 구조에 대한 재인식, 그리고 여성의 재사회화과정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된 특징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4. 여성상담자의 전문성

이상의 여성상담의 특징에서도 나타나있듯이 여성상담자는 역할모델인 동시에 지지적인 도움행동에 모범을 보이고, 자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지적, 전문적 성장에 관여하며, 정치적 쟁점이나 경제적 이득에도 관여하는 것을 모델링하는 역할을 한다(Cantor, 1990). 이런 특징과 함께 여성상담자는 자기노출의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고 내담자의 문제에 적극적인 개입을 피하기도 한다. Butler Marylou(1990)는, 여성상담자는 지속적으로 자신의 상담에 대한 평가기회를 가져야 하고, 저소득 여성내담자에 대한 배려를 염두해야 하며, 자신의 치료적 접근과 관련하여 생활양식과 가치관을 검증하고, 여성주의 철학과 목적에 동의하고, 내담자에 대한 치료적 맹목점(blind spots)이 될 수 있는 인종적, 계층적, 성과 관련된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1975년 APA(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에서 구성한 Committee on Women in Psychology Task Force의 연구결과는 기존의 심리치료자들이 네가지 일반적 범주, 즉 전통적인 성역할을 강조하는 것, 둘째, 여성에 대한 기대에서의 편견과 평가절하, 셋째, 정신분석적 개념의 성차별적인 사용, 넷째, 여성내담자의 유혹을 포함해서 성적 대상으로 여성에게 반응하는 것의 범주에 속한다고 기술하였다.

그러면서 여성상담자가 윤리적이고 효율적인 상담을 위한 심리치료를 실천하는 데 필요한 13가지 지침을 발표하였는데, 그 지침에는 성역할의 제한으로부터 자유로울 것, 사회 내의 성차별적 관행을 인식하고 내담자의 선택에

서 이러한 관행의 탐색을 추진할 것, 현재의 성 역할, 성차별주의에 관한 연구에 대한 지식을 쌓을 것, 성편견이나 성고정관념으로부터 자유로운 이론을 채용할 것, 성차별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을 것, 내담자의 문제가 사회적, 상황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에게 원인을 돌리지 않을 것, 치료관계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주고 합의를 볼 것, 내담자에 대한 정보를 타자와 나눌 필요가 있을 때 반드시 내담자의 동의를 구할 것, 권위있는 치료절차라 하더라도 여성의 고정적인 의존심을 강화하거나 유지하는 치료가 아닐 것, 내담자의 주장적 행동을 수용할 것, 신체적 학대나 성폭행과 연루된 여성내담자는 범죄의 피해자라는 인식을 가질 것, 여성내담자의 성에 대한 탐색을 장려하고 그녀 자신의 성적 선호에 대한 권리를 인정할 것, 여성내담자와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그녀를 성적대상으로 대하지 않을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APA, 1978).

이러한 여러 견해를 종합해 보면 여성주의 상담자는 기존의 심리학적 지식과 인간에 대한 이해방법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되 기존의 남성 중심적 이론의 틀을 넘어서 여성주의 철학과 여성의 사회화에 대한 지식을 기초로 내담자의 문제에 접근하며, 내담자를 대등한 입장에서 존중하는 자세를 취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정리할 수 있다. 여성상담자는 매우 지지적인 태도를 취하면서도 내담자와 주변상황, 또는 환경과의 관계를 이해하고 평가하는 데는 높은 통찰력이 요구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여성개발원(1989)에서는 여성상담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여성상담자는 반드시 열렬한 여성운동가일 필요는 없으나 성차별 없는 상담을 지향해야 할 것이며, 여성내담자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지 않음은 물론 성적 편견을 나타내는 검사도구를 사용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성평등교육에 기초한 교육과

훈련을 받은 특수 전문적으로 그가 속한 문화와 그로 인한 여성의 문제를 이해하고, 여성을 돕는 정보를 수집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부단히 연구노력 해야 할 것이다.”(한국여성개발원, 1989).

이러한 특징들로 인하여 여성상담자는 여성이 보다 적절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김영애(1995)는 “남성상담자는 의식화가 되어있더라도 미묘하게 여성을 억압할 수 있기 때문에 여성상담에서 상담자는 의식화된 여성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같은 글에서, “전통적인 심리치료에서 여성내담자들은 지나치게 남성상담자를 이상화함으로써 변화에 저항하고, 남성을 위협할 수 있는 자신의 독립성추구를 포기하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여성내담자가 상담자에게 표출하는 적절한 분노, 비판, 상담자와의 경쟁심등이 남성상담자에 의해서 부적절한 행동으로 판단될 수 있고 결국 여성 내담자는 자신의 자율성과 성장을 포기하게 된다는 것”이다. 여성내담자가 남성상담자를 이상화하게 되는 심리기제에 대해 Greenspan(고석주, 1995)은 “아버지가 가장 잘 알고 있다”는 식의 사회적 종속을 수용하도록 키워진 사고로서 설명하고 있다.

Kaplan(1988)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남성치료자로부터 치료를 받는 여성은 여성치료자의 경우보다 더 애로틱한 감정, 분노, 억제, 우울을 보고했고 치료 후에도 남성치료자와 여성내담자의 경우, 여성치료자와 여성내담자에 비해 덜 자기수용적, 덜 개방적, 덜 자기결정적이라고 자신을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실적으로도 여성주의 상담을 주장하는 상담자 대부분은 여성들이다. 여성상담이 여성들이 처해있는 사회현실을 배경으로 여성들이 지혜를 모으고 서로 돕는 과정에서 서서히 발전해 왔고 여성상담의 기본철학이 동지애적 공감과 평등한 인간관계를 중심으로 한다는 점에서

도 여성상담자가 보다 효과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상담자의 성(여성)을 필수조건으로 내세우는 데는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우선 이는 남녀를 가르는 또 하나의 이분법적 사고를 낳을 수 있다. 오히려 현재 여성내담자의 치료나 상담을 맡고 있는 많은 남성치료자, 상담자를 대상으로 여성상담에서 발견해온 사실과 개념들을 치료에 도입하려는 노력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성상담의 기본개념들이 치료에 더욱 효과적인 면이 입증된다면 이러한 치료관점에서의 변화도 기대해볼만 하다.

그런 점에서는 여성상담의 필요성을 강조할 뿐 아니라 자질있는 여성상담자의 양성과 여성상담의 효과를 널리 알리는 노력등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여성상담에서는 전문경력이나 수련에서의 차이를 배제하고 평등을 주장하지만 한편 보다 효과적인 도움을 줄 수 있으려면 여성에 대한 공감, 관심만 갖고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역시 여성을 의식화시키고 여성에게 자신의 사회현실이나 개인적 성장의 힘을 느끼게 하려면 상담자의 상담자질과 상담전략이 관여하게 된다. 그러기 위해서 여성상담자는 상담이론과 기법의 전문가인 동시에 여성학적 사회학적 관점과 여성심리의 전문가로서의 훈련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의 여성상담은 심리학을 연구한 사람들보다 여성운동, 여성학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 부터 발전되어왔다. 여성상담을 보다 세분화되고 전문적인 분야로 인식하게 된 것도 여성들이 처해 있는 사회적 환경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되었으며, 결국 여성들이 주로 호소해오는 적응문제나 심리장애가 그들이 처해 있는 환경적 압력이나 가부장적인 고정관념과 맞물려 있어서 이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여성은 계속 희생자로 남을 수 밖에 없다는 필연성 때문으로 해석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

나 최근들어 여성심리가 심리학자들 사이에서 또다른 세분화된 분야로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여성상담에 대한 심리학적 지원이 강화되고 여성상담분야에서도 기존의 상담심리에 대한 이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물론 여기서의 수용은 여성주의 관점에서의 비판을 동반하는 것이다. 특히 오랫동안 누적되어온 성고정관념과 이를 구성하고 있는 성스키마(gender schema)에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인지적 전략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결과들은 앞으로 여성상담기술의 발전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기존의 심리상담이론에 대한 비판적 시각과 함께 여성상담에 적합한 상담전략이나 기법을 발견하기 위해서도 상담심리에 대한 지식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한편 여성상담에 대한 기본철학을 받아들이는 심리상담자들은 여성주의적 관점과 발견에 대한 충분한 연구기회를 가져야 한다. 이러한 다양한 관심과 접근으로 인하여 앞으로 여성상담은 다학문적 성격을 띄고 발전해 갈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여성상담의 특징과 여성상담자에 대한 요구 등을 고려하는 한편 보다 효과적인 상담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여성상담자의 전문적 자질에 대해 정리해보기로 하겠다.

첫째, 여성상담자는 전문가로서의 권위보다 여성에 대한 깊은 관심과 동지적 공감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며, 여성에 대한 자신의 고정관념을 해결한 사람이어야 한다.

둘째, 우리 사회에서의 성차별적인 사고와 인습, 그로인한 고정화된 성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를 하고 그것이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한 통찰을 필요로 한다.

셋째, 여성심리에 대한 전문가로 성차별주의와 성고정관념의 배경이론, 형성과 변화전략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쌓아야 한다.

넷째, 여성내담자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심리적 갈등과 문제, 심리장애의 원인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다섯째, 여성내담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돕는데 필요한 사회적 자원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와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여섯째, 상담이론과 기법에 대한 상담전문가로 상담이론의 적용에서 성차별적인 요소에 대한 비판적 안목을 갖추어야 한다.

일곱째, 여성상담자 자신이 여성으로서의 긍정적인 자아개념과 양성적 특징을 갖추고 있는 건강하고 성숙한 모델이어야 한다.

5. 맺음말: 앞으로의 과제

상담은 한 개인이 자신의 성장가능성을 최대한 계발하여 자아실현에 이를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여성상담도 이러한 목표에는 다를 바 없다. 다만 여성들이 경험하는 여성 특유의 문제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여성의 입장에서 내담자를 이해할 수 있고 그 여성이 진정으로 자아실현에 이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최근에는 여성내담자의 상담요구가 높아지면서 여성상담은 특정 상담자들의 관심사로 한정될 수 만은 없는 문제가 되고 있다. 여성상담 분야가 세분화된 전문분야로 발전하고 있는 것과 병행하여 앞으로는 지금까지 연구발표된 여성상담의 이론적 배경과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결과들을 중심으로 모든 상담자의 훈련과정에 여성상담에 대한 기본이해를 필수과목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남성상담자들 역시 여성상담에서의 주장과 학문적 견해를 기초로 한 여성문제에 대한 이해가 여성상담을 보다 성공적으로 이끄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여성상담은 여성심리학, 상담심리학, 여성학,

사회학, 문화인류학 등의 다학문적 전문지식을 배경으로 하는 특수 전문분야로, 여성문제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열의, 애정이 뒷받침이 될 때 진일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다학문적 접근이 필요한 분야인데도 불구하고 아직은 각 분야별로 산발적으로 이루어져 여성상담에 대한 보다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는 많은 여성심리학자와 상담심리학자들의 이 분야에 대한 연구들이 기대되며, 이는 학문적 범주를 넘어서 여성학적인 배경과 사회학적인 관점을 기초로할 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 관련학문 연구자들, 그리고 현장여성상담자들간의 활발한 교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여성상담 전문성 확대를 위한 기본 성격에 대해 상담심리학자의 관점에서 다학문적 성격의 강조와 심리학자들의 관심을 촉구하는 데 그쳤으나 앞으로는 여성상담 전문성의 확보를 위해 여성상담자의 훈련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 고석주 역 (1995). 우리 속에 숨어있는 힘. 서울: 또 하나의 문화[Greenspan, Miriam (1983). *A New Approach to Women & Therapy*. New York: McGraw-Hill Book Company.]
- 김영애 (1994). 여성중심상담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방법론. 여성상담심포지움자료집. 한국 여성의 전화. 6-33.
- 김영애 (1995). 여성상담론. 여성상담과 여성복지. 한국여성의 전화. 16- 45.
- 김혜숙 (1995). 여성심리. 여성상담과 여성복지. 한국여성의 전화. 91-109.

- 박애선 (1994). 여성주의 상담과 여성주의 정체성 발달에 관한 일 연구. 여성상담심포지움 자료집. 한국여성의 전화. 35-55.
- 최해림, 김영희 (1996). 한국 여성의 심리장애와 여성치료의 방향. 상담과 심리치료. 한국심리학회. 153-167.
- 이상덕 (1995). 한국사회와 여성상담. 여성상담과 여성복지. 한국여성의 전화. 7- 15.
- 이혜성 (1988). 여성상담의 기본개념. 여성상담 기법에 관한 세미나-여성상담과 여성개발. 한국여성개발원. 7-8.
- 한국여성개발원 (1985). 여성상담의 실제.
- 한국여성개발원 (1989). 여성상담자 훈련프로그램 개발.
- 한국여성개발원 (1990). 여성상담사례연구집.
- 한국여성의전화 (1985). 개원 2주년 사례연구보고서.
- 한국여성의전화(1988). 개원 5주년여성상담사례집.
-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1978). Guideline for Therapy With Women: Task Force on sex Bias And Sex Role Stereotyping In Psychotherapeutic Practice. American Psychologist, 1122-1123.
- Beall, Anne E., Sternberg Robert J. (1993). The Psychology of Gender. NewYork: Guilford Press.
- Butler, Marylou (1990). Guidelines for Feminist Therapy. In L. B. Rosewater and L. E. A. Walker(ed.). Handbook of Feminist Therapy. (pp. 32-38).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Company.
- Cantor, Dorothy W. (1990). Women as Therapists: What We Already Know. In Dorothy W. Cantor(ed.). Women As Therapists. (pp. 3-17). NewYork: Springer Publishing Company.
- Enns, Carolyn Zerbe (1992). Self-Esteem Groups: A Synthesis of Consciousness- Raising and Assertiveness Training.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71. 7-13.
- George, Rickey L, and Cristiani Therese Stridde (1981), Theory, Methods, and Processes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Englewood Cliff Prentice-Hall, Inc.
- Gilbert, Lucia Albino (1992). Gender and Counseling Psychology: Current Knowledge and Directions for Reserch and Social Action. Brown, Steven D. and Lent, Robert W. (eds.). Handbook of Counseling Psychology.(383-416). NewYork: John Wiley & Sons, Inc.
- Kaplan, Alexander G. (1988). Reflections on Gender and Psychotherapy. Braude Marjorie(eds.). Women, Power, and Therapy. NewYork: The Haworth Press, Inc. 11-23.